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조윤경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3.9.3~2013.12.13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랑가라콜리지는 밴쿠버 남쪽에 위치한 학교로 지하철역과 걸어서 5분~10분 정도 걸리는 학교입니다. 규모는 밴쿠버 다운타운 내에 있는 다른 College들 보다는 큰 규모이지만 확실히 대학교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p>
수업	<p>LEAP(Langara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 (오전반: 8:30am~12:20, 오후반: 12:30~4:20) 수업이고, Reading, Listening, Writing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외국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small group discussion을 자주 합니다.</p> <p>한 세션이 7주로 이루어져있고, 2번의 그룹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책은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모두 유인물로 수업하게 됩니다. 숙제는 적지 않은 편이고,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서 지각, 결석, 숙제를 했는지 모두 체크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오리엔테이션을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은 레벨 테스트를 위한 날이었고, 둘째 날은 LEAP프로그램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은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모두 유용한 정보였으나 하루에 몰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p> <p>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국제교류본부처와 같은 International Education 부서가 따로 있는데, 매 달 외국 학생들을 위한 activities를 게시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카운슬러가 있다고 하는데, 이용해 본적은 없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8~9월은 해도 길고 날씨가 굉장히 맑으며 좋습니다. 하지만 10월 이후로는 비가 오는 날이 잦아지는데, 레인부츠나 방수가 되는 바람막이, 가벼운 우산을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겨울 내내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번 년도에는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맑은 날이 기온이 더 낮아 -6에서 -1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날이 있으니 겨울 옷도 챙기기를 권장합니다.
안전	밴쿠버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숙소	제가 지낸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40분~50분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버스30분+지하철10분+도보 5~10분). 학교와 꽤 멀었지만 좋은 호스트를 만나서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로 규칙은 없었지만 호스트가 따로 아침이나 점심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방은 혼자 썼으나 같이 홈스테이 하는 친구가 2명 더 있었습니다.
식사	주중 아침은 씨리얼이나 토스트를 주로 먹었고, 주말 아침에는 계란, 소시지, 와플 등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거의 대부분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었고, 점심을 싸가지 않은 날에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사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	버스, 스카이트레인 (지하철) 밴쿠버는 도시가 작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900,000	In, Out 다름
보험료	LIG 해외여행보험(유학생플랜) 기간:122일 약 17만원	
숙소	\$750	
교통비	\$91	Monthly Pass
책값	0	유인물로 모든 수업 진행

기타1	\$500	평균 한달 지출 비용 (교통비 제외)
합계	\$1341+1,9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1. 우산, 레인부츠 (10월부터 비가 자주와요)
2. 겨울에 한국보다 온도가 높기는 하지만 추울 땐 추워요.
3. 홈스테이에 본인 말고도 홈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랑가라 컬리지에서 2세션을 지내면서 한 세션은 망나니처럼 다니고 한 세션은 모범생처럼 다녔어요. 밴쿠버 처음 도착해서 새로운 삶에 너무 신난 나머지 9월 내내 같이 홈스테이 하는 일본인 친구와 학교 끝나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해야 할 숙제들을 그저 끝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빨리 끝내고 놀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하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내가 직접 하려니 잘 안돼 더라 구요. LEAP 프로그램이 굉장히 견고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이어서 하나만 놓쳐도 손해가 큰데 저는 여행을 위해 3일이나 결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수업보다 여행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보니 정말 막살았다는 느낌이..... 그래서 다음 세션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발표도 많이 하고, 그룹 토론할 때 말도 많이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는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바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했어요. 숙제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숙제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지난 세션보다 수업을 따라가기 쉬웠고, assessment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8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엄청 늘었다'의 기준은 영어로 말하는 것이 편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영어실력을 늘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밴쿠버에 와서 동양권 문화와 다른 것을 많이 느꼈고, 특히 캐네디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서양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또한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도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그룹토론을 할 때에는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교환학생 면접을 볼 때 "우리나라와 다른 서양권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캐나다 문화뿐만이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는 중국인, 일본인 친구들에게서도 몰랐던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영어와 더불어 짧은 중국어와 일본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3개월이 정말 짧게만 느껴졌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Langara college 잔디밭



Stanley Park



Host Kid와 함께



Thanksgiving day & Halloween 기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세션 마지막 날 과자파티